

## 지속적인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차 미 숙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5월초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를 다녀왔다. 꽃박람회장은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내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꽃보다 사람"이라 표현을 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태안지역 기름유출사태로 가뜰이나 지역경제의 침체를 겪고 있던 시점이라 매우 다행스러웠다. 게다가 티켓 예약제를 통한 마케팅전략이 주효해 예상 관람인원을 훨씬 상회하여 전국적으로 태안지역을 꽃, 봄이라는 밝은 이미지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한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박람회장을 둘러보면서 드는 아쉬움 또한 떨칠 수 없었다. 섬이라는 안면도의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한계도 있겠지만, 꽃박람회 추진과정에서 관람객들을 배려하는 미흡함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앞으로 성공적인 안면도 꽃박람회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대비해, 이를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개선과제와 제안을 하겠다.

### 지역간, 지역내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대책을 마련해야

꽃박람회 행사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지므로 일시적인 관람객 증대와 이에 따른 교통집중현상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안면도는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불편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도 많은 인파가 일시에 몰리면서 꽃박람회장은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했다. 박람회장이 섬에 입지한 관계로 육로를 통한 일시적인 교통흡수방안을 찾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섬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간 교통을 육로교통 이외

에 뚝배나 유람선, 크루즈, 경비행기 등 해상·항공교통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해 관광상품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안면도 내부와 박람회장 내부교통 수단도 도보 이외에 자전거, 셔틀버스(이층버스, 하이브리드카 등)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녹색교통 및 첨단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차량으로 북적대거나 사람들로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워 제대로 꽃구경을 하기에 힘들었을 관람객들에게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안면도의 따스한 봄 정취와 박람회장의 경관을 한껏 누리도록 대비해야 한다. 향후 꽃박람회 개최시에는 지역간 교통과 지역내 교통수단의 다양화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관람객의 일정과 요금을 연계해 분산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요일별 요금 차등제를 확대하거나 1일권, 2일권 등의 요금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관람객의 지역내 체류기간을 분산, 내지 연장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내 펜션·화훼 등 민간업체 등과 협력해 꽃관람(조경)-펜션-교통연계 상품 및 복합 상품을 만들어 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꽃, 나무에 대한 충분한 해설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최근 국토순례나 지역여행을 다니다보면 이전과 달라진 점은 지역문화해설사의 활용이 현저해졌다는 점이다. 지역문화, 숲 등 전문 해설사들의 설명이 채색되면서 단순한 사물이나 대상들은 전혀 새로운 역사와 이야기를 갖는 특수한 대상으로 바뀐다. 그만큼 이해와 관심이 높아진다.

꽃박람회에서는 나무해설사, 꽃해설사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이번 꽃박람회는 「꽃, 바다, 그리고 꿈: 꽃으로 풍요로워지는 생활」을 주제로 하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꽃과 원예, 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체험기회를 제공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치중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물론 행사장이나 관람객의 규모로 인해 쉽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꽃박람회장을 찾는 사람들은 꽃의 식재, 조경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는 관람객들의 취향과

관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꽃, 나무, 지역문화 등에 대한 전문해설사를 적극 활용해 꽃과 생활의 여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꽃심기, 분재·정원가꾸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해 관람객들이 꽃을 통해 행복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안면도 전체를 '아름다운 꽃섬, 휴양지대'로 만들자

이번 안면도 꽃박람회는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피해로 인한 관광객 감소, 지역경제 침체와 국내 화훼농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태안유류피해지역의 원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최근 급격한 세계 및 국내경기 동반침체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예상 관람인원 110만 명을 상회하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는 꽃과 자연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증대 경향도 일조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번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이제부터 차근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다음 꽃박람회는 안면도 전역에 걸쳐 분산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꽃박람회 전시장을 안면도내 특정 입지에 배치해 관람객들이 단순히 몇 시간 들러 꽃들만 훑어보고 돌아가는 데서 벗어나, 안면도 전역에 걸쳐 분산 배치된 꽃박람회 전시장과 주변지역을 충분히 체험할 것을 제안한다. 청정지역 안면도에서 휴양과 꽃 체험을 고루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안면도 전체가 꽃박람회장이 되고, 안면도 자체가 청정이미지의 "아름다운 꽃섬" "휴양하기 좋은 섬"으로 자연스럽게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이미지의 창출 및 제고를 위해 제주도의 올레 길과 같이 안면도내 걷기좋은 길과 자전거 도로를 만들거나, 여유와 휴양의 지역이미지 부각을 위해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조성하는 등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병행 추진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충남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

김 경 석 | 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09년 5월 28일, 착공 9년 만에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153km가 개통되었다. 고속도로 연장은 지역경제발전과 도시 및 국가의 경쟁력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두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충남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455km가 되며, 경북 535km, 경남 487km, 그리고 경기 485km에 이어 네 번째 수준이 된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은 충남이 52.9km/천km<sup>2</sup>로서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되었고, 전국 평균 35.2km/천km<sup>2</sup>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2개의 고속도로는 충남의 6개 시·군을 통과하고 있다. 당진, 예산, 공주, 서천, 부여, 청양 등이며, 당진, 공주를 제외하면 그간 충남지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교통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손꼽히던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한꺼번에 두 개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민들은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 놓고 있다. "생활권이 넓어지고 많은 외부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쉽게 올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주변 혹은 보다 매력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지역의 경제력, 사람들이 빠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충남 지역은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미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지역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는 수도권 수요를 직접 유치할 수 있는